

# LG·애플 새 폰 공개…‘스마트폰 삼국지’ 예고

V20 이어 오늘 아이폰7 선포

갤노트7 리콜 맞물려 본격 경쟁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이하 갤럭시7)이 전량 리콜이라는 돌발상황을 맞은 시점에서 LG전자와 애플이 신규 스마트폰을 공개, 고급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회사의 스마트폰 출시 일정은 삼성전자가 리콜을 마치고 재판매에 들어가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오는 10월 3사의 대대적인 ‘전쟁’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LG전자는 7일 서울 양재동 서초 R&D 캠퍼스에서 신제품 프리미엄 스마트폰 ‘V20’을 공개했다.

V20는 차별화된 오디오 경험에 방점을 두고 개발된 스마트폰으로 ‘32bit 하이파이 쿼드 DAC’를 세계 최초로 적용했다. DAC는 디지털-아날로그 신호변환기로 음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전작인 V10에는 싱글 DAC가 들어갔다.

세계적인 오디오 기업 뱅앤올룹슨(Bang&Olufsen)의 음질조정(튜닝) 기술이 더해졌고, 뱅앤올룹슨과 협업해 만든 이어폰까지 함께 제공된다.

V20는 구글의 최신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7.0 ‘누가’와 새로운 검색 기능인 ‘인앱스’(In Apps)도 세계 최초로 도입, 인앱스를 이용해 이메일·주소록·메시지·유튜브 등 앱에서 나온 검색 결과를 구글 앱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다.

전·후면부에 모두 ‘듀얼카메라’가 탑재

■LG V20-아이폰7 비교해보니

LG V20	애플 아이폰7	
		
9월 말	출시 일시	10월 말(국내)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7.0 ‘누가’	성능	앱 프로세서 ‘A10’
듀얼 카메라(전·후면)	카메라	광학손떨림방지(OIS) 기능 듀얼 카메라(5.5인치)
오디오 강화 (32비트 하이파이 쿼드 DAC)	특징	저장 용량 2배↑ (32·128·256 GB)
그레이, 실버, 핑크 3가지	색상	실버, 골드, 로즈골드, 다크블랙, 피아노 블랙 5가지

※아이폰7은 전문가 전망 의견 참조

되고, 색상은 그레이, 실버, 핑크 3가지로 출시될 예정이다.

‘아이폰7’으로 불리는 애플의 신모델은 한국시간으로 8일 새벽 2시(미국시간 7일 오전 10시) 미국 샌프란시스코 빌 그레이엄 시빅 오티토리엄에서 공개된다.

애플이 신제품에 대해서는 공개행사 전까지 철저히 입을 다무는 탓에 아직도 추측이 난무하지만, 현재까지 전문 분석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4.7인치 기본모델과

5.5인치 플러스 모델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 KGI증권의 매티 귀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4.7인치 모델 후면 카메라에 광학손떨림방지(OIS) 기능이 적용되고, 플러스 모델에는 애플 최초로 듀얼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전망했다.

듀얼카메라는 두 가지 이미지를 합쳐서 좀 더 밝고 선명한 촬영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사진 확대 때 선명도를 그대로 유

지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신작은 외관에서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10’이 탑재돼 성능이 전작보다 20%가량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저장 용량은 32·128·256기가바이트(GB) 등 3가지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기존 16·64·128GB 구성에서 용량이 2배씩 늘어난 것이다.

이밖에 수심 1m에서 30분간 견딜 수 있는 방수기능(IPX7)을 갖추고, 색상은 실버, 골드, 로즈골드, 다크블랙, 피아노 블랙 등 5가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LG전자와 애플이 연이어 공개한 신규 스마트폰의 본격적인 판매가 삼성전자의 갤럭시7 리콜이 끝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오는 10월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다투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LG전자의 V20은 9월말 출시 예정이고 애플의 아이폰7 출시 시점은 1차 출시국 기준으로 9월 말, 국내에서는 10월 말에 시판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애플은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갤럭시7 리콜을 결정한 탓에 신제품 마케팅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상태다.

또 LG전자의 멀티미디어 기능을 강조한 V20가 전작 V10과 세계최초 모델형 스마트폰이었던 G5의 부진을 씻어내는 성적을 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전작폰의 잇따른 실패로 부진의 늪에 빠진 LG전자로서는 갤럭시7 리콜사태가 ‘설욕전’을 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인 셈이다.

／박기용기자 pboxer@연합뉴스

“쓸 데까지 써보고 바꿀까?”

갤노트7 교환기한 6개월 여유…환불보다 많아

자체 리콜이 결정된 삼성전자의 대화면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고객들 중 환불보다는 제품 교환을 받으려는 경우가 훨씬 많으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갤럭시노트7 구매자 입장에서 대안이 마땅치 않은데다, 환불은 이달 19일까지만 가능하지만 교환 기간은 내년 3월까지 6개월여 남았기 때문이다.

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휴대전화 매장과 이동통신 대리점 등에서 갤럭시노트7에 대한 환불이 시작됐으나 신청자가 소수에 그쳤다.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는 국내에서 갤럭시노트7 제품교체가 개시되는 19일 당일까지 원하는 고객에게는 환불해준다는 방침을 밝히고 공시지원금 위약금 면제 등 환불 고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그러나 환불보다는 교환을 택하는 고객이 훨씬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가에서는 이미 교환 대 환불 비율을 7대 3으로 가정해 삼성전자의 손익을 계산하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환불보다 교환이 ‘대세’가 된 가장 큰 이유로 관련 업계는 넉넉한 교환 기간을 꼽는다. 삼성전자는 교환 기한을 잠정적으로 내년 3월로 정했다.

특히 상당수 사용자는 일단 서비스 센터에서 배터리 점검을 받아 보고 지금 갖고 있는 갤럭시노트7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판정이 나오면 한동안 이를 그대로 쓰다가 교환가능 기한이 임박했을 때 새 제품으로 교체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한 업계관계자는 “기한에 여유가 있다 보니 고객들이 굳이 일찍 교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갤럭시노트7 구매 고객층의 특성상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환불 대신 교환을 선호하는 이유다. 현재 갤럭시노트7을 갖고 있는 사람 대부분은 예약구매자들이다.

‘뽕뽕’ 등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이번 주 공개될 애플의 아이폰7과 LG전자의 V20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미수령 예약구매자의 글이 줄을 이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예약구매자는 단말 값을 지불한 게 아니어서 일단 기다리자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곧 나올 신형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비교해 결정하려는 고객들도 다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체장애 이창현씨 “앵글로 자유 찾았어요”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사진전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배승수)는 오는 17일까지 1층 미디어갤러리 ‘창’에서 지체장애 1급 이창현씨의 ‘접히진 날개의 꿈’ 사진전을 연다.

이창현씨는 지난 1991년 교통사고로 경추 5번~7번이 손상돼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사고 이후 모든 꿈의 날개가 접혀버렸지만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역경의 시간을 견뎌내다가, 지난

2005년부터 광주센터에서 사진미디어 교육을 받았다.

이씨는 “주변의 권유와 장애인들의 열정과 꿈을 나누고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서 사진전을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꽃들 사이를 비행하는 벌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 까치들이 담겨져 있는 17점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장면에 구속된 몸의 자유를 갈망하는 한 사람의 열망이 담겨있는 사진들이다. 문의 062-650-0326.

／박기용기자 pboxer@

광주과학관 천체관측 행사

오늘 선착순 250명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강신영)은 8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야간천체관측 행사를 진행한다.

올해 일곱 번째 열리는 이번 야간천체관측 행사는 영상상영과 은하에 관련한 강연도 함께 이뤄진다.

강연이 종료된 오후 8시부터는 야외에서 여름·가을철 별자리에 대한 설명과 토성, 화성, 알베레오 등 행성들을 관측할 예정이다. 알베레오는 두 개의 별이 서로 공전하고 있는 대표적인 쌍성이다.

망원경 관측 외에도 VR기기를 이용한 별자리 학습 기회도 마련돼 있다.

접수는 당일 오후 6시30분부터 국립광주과학관 정문에서 진행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선착순 250명으로 마감한다.

자세한 정보는 광주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cecenter.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상상황에 따라 야간관측이 불가능할 경우 당일 행사는 취소될 수도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



여기 지구 맞지?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약 6개월간 머물며 임무를 완수한 제프 윌리엄스(미국·왼쪽)와 알렉세이 오브치닌(러시아·가운데), 올렉 스크리피치카(러시아) 등 우주인 3명이 소유스 우주선 귀환캡슐을 7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제즈카즈간 인근 평원에 도착한 뒤 캡슐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개  
법인

한국토지경매

1522·3396



테마파크

감정가 15억

담양 / 대지 1073평 건물 336평



토지

감정가 12억 8천만원

생촌동 / 대지 499평



상가

감정가 6억 5천만원

봉선동 / 대지 157평 건물 78평



빌딩

감정가 9억 5천만원

치평동 6층 / 대지 66평 건물 260평

◆ 숙박시설

북구 오룡동 / 대지 363평 건물 1199평 / 3동 7층

감정가 38억 7천만, 최저가 38억 7천만

◆ 수익형 상가 빌딩

동구 금남로 / 대지 172평 건물 249평 / 금남로 메인 도로점 / 3층

감정가 21억 3천만, 최저가 11억 9천만

◆ 숙박시설

서구 양동 / 대지 175평 건물 352평 / 5층

감정가 9억 5천만, 최저가 4억 9천만

◆ 고급 펜션 및 주택

여수 / 대지 524평 건물 106평 / 해변 전망

감정가 6억 8천만, 최저가 4억 8천만

◆ 전통한옥식 전원주택

보성 / 대지 185평 건물 80평 / 도로점 / 보성강 전망

감정가 3억 6천만, 최저가 2억 5천만

◆ 상가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윤리중학교 인근

매매가 17억

◆ 전통한식당 및 웨딩공연장

담양 고서면 / 대지 1570평 건물 571평 / 제1종일반주거지역

매매가 16억

◆ 상가

서구 치평동 / 대지 56평 건물 61평 / 우체국인근 / 2층

매매가 15억

◆ 전원주택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

매매가 13억

◆ 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7가구 / 공실없음

매매가 5억 5천만

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 - 6772-1114 김 주 성